

2024년 1월 31일

참되고 지혜롭게

늘 느끼는 것이지만 더운 날씨에 연말연시를 보내는 것이 아직도 익숙하지 않습니다. 해가 바뀔 때면 추운 날씨에 움추러들고 차분해지는 분위기가 익숙한데 우간다에서는 이런 분위기를 느낄 수 없으니 해가 바뀌어도 해가 바뀐 느낌이 들지 않기에 시간이 멈춰진 느낌입니다.

그리고 시간은 흘러 벌써 2024년 1월이 지나갑니다. 저희는 지금 2월부터 시작될 학기를 준비하느라 분주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준비가 시간이 흐르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네요.



2024년은 어떤 주제로 학교 생활을 해야 하는지 시무 예배와 함께 주제 나눔으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2024년의 주제는 **"Live in Harmony (Rom12:16)-어울려 살아가기 (롬12:16)"**로 정했습니다.

다양한 부모들과 아이들이 살아가는 학교에서 나눔과 차별이 없이 한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 안에 어울려 생활하는 2024년이 되길 소망하며 이 주제를 가지고 열심히 달려가기로 다짐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우간다는 달력이 귀한 나라입니다. 가정마다 상점마다 걸 수 있도록 올해도 학교에서 달력을 제작하여 모든 교직원들이 달력을 들고 나가 복음도 전하고 학교도 알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먼지를 뒤집어 쓰며 먼 곳까지 걸어다니며 전하다 보면 어느새 한 가득 가지고 나갔던 달력이 소진됩니다. 다 나눠주고 나서 먹는 아이스크림은 꿀 맛이겠죠? 저희 동네에도 기계로 뽑는 소프트 아이스크림 가게가 생겼답니다.



교사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세미나를 올 해는 두 차례나 가졌습니다. 컴퓨터를 활용한 수업 준비를 위한 컴퓨터 교육을 하였고, 마침 한국에서 자기관리를 위한 시간 활용을 강의하시는 선생님이 오셔서 저희 학교에서 교사들을 위한 세미나를 열어 주셨습니다. 교사들에게 가능한 많은 것을 경험하게 해 주고 가르쳐주고 싶습니다. 언젠가 이 교사들이 또 다른 곳에서 이곳에서 배운 것들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기를 바라기 때문이죠.





지난 1월의 가장 큰 사건?은 저희 파송교회 담임 목사님 부부가 처음으로 우간다를 방문하신 것입니다. 선교사로서 파송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사역을 방문해 주시는 것이 가장 큰 복이고 바램이기도 하지만 쉬운 일이 아니고, 계획을 했어도 실행하기는 어려운 것인데 드디어 그 날이 온 것입니다. 마치 가족이 온 것처럼 너무나 반갑고 감사했습니다. 함께 사역을 돌아보고, 교사와 아이들을 만나고, 함께 예배드리고, 동료 선교사들을 만나고, 좋은 식당에 가서 맛난 음식도 먹었습니다. 선교지를 돌아보며 많이 격려해주셨고, 저 역시 파송교회를 이해하고 담임 목사로서의 역할과 책임감을 조금이라도 헤아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사모님이 함께 방문해 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얼마나 위로와 큰 격려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4박 5일의 짧고 꿈 같은 시간은 정말 쏠 살 같이 지나갔습니다.



지방의 한 학교의 교사들을 초청해서 저희 학교를 모델로 교사교육 세미나를 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하지 못했던 사역을 다시 시작한 것입니다. 어떻게 기독교 교육이 차별이 없이도 가능한지, 교육 철학이 무엇인지를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한 것은 선교사가 답을 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교사들이 그동안 보고 배운 것들을 가지고 답을 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저희 학교와 교사들이 앞으로 계속 이렇게 쓰임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월은 본격적으로 한 해의 사역이 시작이 되는 달입니다. 안 그래도 짧은 달이 더 빠르게 지나갈 것 같습니다. 현재 하고 있는 사역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우간다 북쪽에 있는 난민 목회자들을 위한 사역을 놓고 기도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이곳을 발판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을 더 많이 감당하길 원합니다. 2월에도 여러분 모두 주 안에서 행복하세요!

함께 기도해 주세요.

1. 2월에 개학하는 신학교, RCMS 학생과 교직원, 선교사들이 행복한 학교생활, 사역이 될 수 있도록.
2. 우간다 북쪽의 난민 목회자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사역에 지혜를 주시고 감당할 시간과 힘을 주시도록.
3. 지난 30일에 있었던 선교부 땅에 대한 재판에서 다시 7월 1일에 열리게 되었는데, 지지 않고 잘 대처하고, 속히 마무리되도록
4. 김은희 선교사 아버님을 요양병원으로 모시기로 했는데 가족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부모님을 잘 모시도록.
5. 인턴 과정을 시작한 강진이가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사회복지 요원으로 한국에서 생활하는 강현이가 시간관리를 잘 하고 주어진 업무를 잘 감당하도록.